

보도 일시	2023. 2. 23.(목) 14:00 2023. 2. 24.(금) 조간	배포 일시	2023. 2. 23.(목)
담당 부서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희준 (044-202-7440)
		담당자	사무관 최영욱 (044-202-7416)

12개 대학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범운영 협약 체결

- 저학년 청년의 조기 진로설정 · 직업체험 및 고학년 청년의 맞춤형 훈련 · 일경험 서비스 제공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삼육대학교 (경기) 가천대학교, 동서울대학교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산·경남) 부경대학교, 동의대학교 (대구·경북) 계명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광주·전라) 조선대학교, 원광대학교 (대전·충청) 배재대학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년 2월 23일(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노원구)를 방문하여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12개 대학*과 사업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 운영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삼육대, 가천대, 동서울대, 가톨릭관동대, 부경대, 동의대, 계명대, 영남이공대, 조선대, 원광대, 배재대

< 고용노동부 -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협약식 개요 >

- ◇ 일시/장소: 2.23.(목), 14:0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
- ◇ 참석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12개 대학 총장 등 관계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협약식〉

이날 협약식은 새로 도입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성공적인 정착을 당부하고자 이루어졌으며,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대학은 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상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최근 청년고용의 양적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연 청년 및 이에 따른 장기구직자·구직 단념 청년의 증가 우려에 따라 기존 기업 장려금 중심의 청년고용정책을 서비스 중심으로 혁신하고자 국정과제*로 추진되었으며,

- * 국정과제 90-2: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해 재학 단계의 청년들에 조기 개입하여 취업·경력설계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존 대학 졸업반 학생을 중심으로 제공되던 각종 청년고용서비스를 심층 상담을 기반으로 개인별 취업준비 시기·정도에 따라 대학 저학년 부터 졸업반까지 체계적·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 (빌드업 프로젝트) 저학년 청년을 중심으로 직업정보 탐색 및 희망 취업경로 설계, 직장체험 등 진로역량 개발 기회 제공
- * (점프업 프로젝트) 고학년 청년을 중심으로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이에 맞는 직업훈련·일경험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 1년간 사후관리

고용노동부는 지역별·대학유형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 운영 대학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12개 대학은 그간 고용노동부의 대학 취업 지원 기반 구축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하여 신규 사업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지역별) 수도권4, 강원1, 부산·경남2, 대구·경북2, 광주·전라2, 대전·충청1
- * (대학유형별) 일반대학10, 전문대학2

협약식에 앞서 이정식 장관은 “많은 기업에서 수시채용 시 대학 취업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청년고용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와 대학의 더욱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라며, “각 대학이 시범사업을 통해 적극성과 창의성을 갖고 다양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이를 토대로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운영대학 총장단 간담회 〉

협약식 이후 이어진 장관·총장단 간담회에서는 각 대학 총장단 으로부터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다양한 조언과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고용노동부와 대학이 청년 취업지원을 위해 협력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도 함께 진행되었다.

이동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은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재학 중 진로·취업지도 및 일경험 등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선제적·종합적 지원 체계로 청년 고용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라며, “우리 서울 과학기술대학교도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실용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장영수 부경대학교 총장은 “지역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 지원에 관한 깊은 관심으로 탄생한 사업의 취지에 크게 공감한다.”라며,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대학 자율성을 바탕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쓸 것”이라 밝혔다.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은 “지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이어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까지 7년 연속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진로·취업 분야에 최상의 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라며, “이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하여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위한 가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2022년 지역청년 취업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고교생의 우수 취업처 확보와 일학습병행이라는 우수 모델을 개발한 것처럼, 이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서도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우수한 모델을 완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은 “조선대학교는 기존에 쌓아온 취업지원 경험과 기반을 바탕으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혜롭게 자신의 길을 찾아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사업 참여 의지를 나타내었으며,

박성태 원광대학교 총장은 “이번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은 대학 입학부터 직업목표 수립과 함께, 졸업 시에는 일경험을 토대로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비구직 청년의 비중을 낮추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며, “대학의 핵심 사업이 되도록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과 우리 대학이 가진 원스톱 진로·취업지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학생들의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해 앞장서 나아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일목 삼육대학교 총장은 “삼육대학교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활용하여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재학 단계부터 직무탐색·훈련·일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선제적인 취업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유광섭 동서울대학교 총장은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통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이 저학년부터 자기주도적인 진로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학생활 주기에 맞는 단계별 체계적 지원은 학생의 취업 경쟁력과 자신감을 향상시켜 성공적으로 사회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각 대학이 청년의 노동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정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니 든든하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대학과 고용노동부의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대학이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정부는 이를 적극 수렴하면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협약식 개요

<붙임2>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개요

<붙임3> `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 명단



◆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 지원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본격 추진에 앞서 '23년 운영대학으로 선정된 12개교와의 업무협약식을 진행

□ 개요

- (일시 및 장소) 2.23.(목) 14:00 ~ 15:10,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 노원구)
- 주요 참석자
 - (고용노동부) 장관, 청년고용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삼육대학교 총장, 동서울대학교 총장, 부경대학교 총장, 계명대학교 총장, 영남이공대학교 총장, 원광대학교 총장, 조선대학교 총장, 배재대학교 총장 등

□ 주요 내용

① 고용노동부와 12개 대학의 사업 운영 약정 체결식

〈선정 대학 명단〉

〈서울〉서울과학기술대, 삼육대 〈경기〉동서울대, 가천대 〈강원〉가톨릭관동대, 〈부산·경남〉동의대, 부경대 〈대구·경북〉계명대, 영남이공대, 〈광주·전라〉원광대, 조선대 〈대전·충청〉배재대

② 서울과학기술대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현장 직원 격려

□ 세부 일정 ※협약 체결까지 공개

시 간	주요 내용
14:00~14:10(10')	· 참석자 환담 (비공개)
14:10~14:13(3')	· 개회사 및 내빈 소개
14:13~14:18(5')	· 축사(고용노동부 장관) 및 환영사(서울과학기술대 총장)
14:18~14:30(12')	· 협약 체결
14:30~15:00(30')	· 총장단 간담회
15:00~15:10(10')	· 현장 직원 격려

□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코로나19 이후의 청년고용상황 개선세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 지연 현상은 오히려 악화*되어 구직단념 청년 증가 우려
 - * 청년층 쉬었음(천명, 전년대비): '18년 313(+14) '19년 360(+47) '20년 448(+88) '21년 418(-30))
 - * 학교직장 이행 과정에서 노동시장 장기간 이탈 시 평생에 걸쳐 고용·임금에 악영향<(Eurofound, '17>
- (목적)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재학청년에게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조기에 지원하여 원활한 '학교-노동시장 이행(School-to-Work)'을 촉진

□ 사업 내용

- (빌드업 프로젝트: 저학년 중심) 인공지능(AI) 기반 직업·진로탐색 서비스와 신직업·미래직업 프로그램 기반의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희망 직업 포트폴리오*' 설계 → 후속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 청년이 희망하는 직무직업군과 이를 위한 중장기 필요 역량, 달성 계획, 단기 프로그램 참여 계획 등 수립 → 향후 희망 진로 진출 시 취업 노력 보여줄 수 있는 실제 포트폴리오로 활용
- (점프업 프로젝트: 고학년 중심) 청년을 취업 준비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1:1 심층상담 기반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 이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 1년간 사후관리와 수당 지급
 - * (자기주도형) 취업준비 역량이 높은 청년으로 맞춤형 최신 채용 경향 정보와 면접기술 등 취업 마지막 단계에 필요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
 - * (서비스참여형) 추가적인 직무역량의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연계,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프로그램 등 연계 제공

□ 지원 대상 및 지원 항목: 총 12개소(일반대학 10개소, 전문대학 2개소)

- (지원 대상) 「고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 (지원 항목)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인건비·프로그램비·운영경비)
- (지원 규모) 최대 약 7.2억원
- (서비스 제공 규모) 12개 대학 약 3만 명(학교당 평균 2,500명)

연번	학교명	소재지	대학유형	재학생수	사업규모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 노원구	일반대학	10,064	3,000명
2	삼육대학교	서울 노원구	일반대학	5,332	1,500명
3	가천대학교	경기 성남시	일반대학	19,370	3,000명
4	동서울대학교	경기 성남시	전문대학	5,788	1,500명
5	가톨릭관동대학교	강원 강릉시	일반대학	6,856	1,500명
6	동의대학교	부산 부산진구	일반대학	13,284	3,000명
7	부경대학교	부산 남구	일반대학	13,226	3,000명
8	계명대학교	대구 달서구	일반대학	20,753	3,000명
9	영남이공대학교	대구 남구	전문대학	6,528	1,500명
10	조선대학교	광주 동구	일반대학	16,685	3,000명
11	원광대학교	전북 익산시	일반대학	13,206	3,000명
12	배재대학교	대전 서구	일반대학	7,936	3,000명